



식물은 좋지만



어머니날이라고 남편이 사준 꽃이 화병에서 시들어 간다. 하남까지 가서 5만 원어치를 샀는데 일반 꽃집보다 두세 배 푸짐하게 꽃다발을 2개나 만들어 주었다. 남편은 봄 기분을 내고 싶다고 작은 꽃 화분도 사서 부엌 싱크에 올려 두었다. 그 꽃들도 처음 우리 집에 올 때보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남편은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때때로 새 화분을 집으로 들고 싶어 한다. 내가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끊임없이 식물을 사들였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아무리 손을 내저으며 만류해도 어느새 나는 동의하지 않은 식물들이 우리 집에 와있었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남편도 사는 것은 좋아했지만 열심히 가꿀 여력은 되지 않았고 나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꽃, 나무 같은 초록색 식물과 식물이 주는 싱그러움과 파릇파릇함은 좋아하지만 가드닝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식물 종류에 맞게 물을 주고, 벌레가 생기면 약을 치고, 식물이 커가면 분갈이를 해주며 관심과 애정으로 가꿔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엄두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았던 미국집에는 아주 작은 뒤뜰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접 만든 텃밭에 꽃과 나무를 키울 때도 나는 물 한번 챙겨 준 적이 없었다. 포도나무가 병들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며 남편이 한숨을 쉴 때도 나는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애정을 갖고 키우던 식물이 죽어버리면 속상한 마음을 넘어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겁이 났던 것 같다.

처음 나만의 화분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십 대 후반에 친구가 사준 작은 선인장이었다. 선인장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키우기 쉽다며 친구가 사준 선인장에는 예쁜 꽃도 피어 있었다. 얼마나 양증맞고 귀엽던지 바로 그 선인장과 사랑에 빠져서 책상에 앉으면 줄곧 선인장을 보고 또 봤다. 하지만 그냥 놔두기만 해도 알아서 버틴다는 그 선인장은 그리 오래 함께하지 못했다. 꽃이 지고 얼마 안 가서 선인장 몸통마저 죽어 버리고 나자 "아, 나는 식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괴감에 사로잡혔고 친구를 볼 면목도 없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몇 차례 용기를 내어 작은 꽃과 나무들을 사서 키웠는데 물 주는 것조차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른다. 식물도 생명인데 나 때문에 또 식물이 죽으면 어찌지 하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다. 꽃다발에 꽃들이 시들어 죽어가면 그래도 마음이 그리 괴롭진 않다. 꽃다발은 1-2주 버티 주면 잘 버텼다 싶어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다. 하지만 흠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던 화분에 식물이 죽으면 마음이 참 씩씩하다. 화려한 꽃다발이 잘난 이웃집 엄친아 같은 존재라면 화분 식물은 내가 키우는 자식처럼 애잔하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식물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롭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 버금갈 정도로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만 하는 일이다.

우리집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가드닝에 관심이 많다. 아이들은 콩과 옥수수 알갱이, 딱다가 남은 수박 씨나 아보카도씨까지 흠에 파묻었고 '에이 설마 싹이 나오겠어' 했던 아보카도는 어느새 막내보다 더

커버렸다.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빈 화분에 딱치는 대로 씨를 파묻고 물을 주며 싹이 트길 기다렸다. 호기심과 기대, 실망과 기쁨을 반복하면서도 식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요즘도 우리 집 베란다에 식물들은 모두 막내가 관리한다. 물이 부족해 잎사귀가 축 늘어져 온몸으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막내가 부지런히 나가서 물을 준다.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식물의 상태를 보고하는 꼬마 가드너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식물 킬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식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나를 닮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운 아보카도 나무에 아보카도 열매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물만 주면 쑥쑥 커가는 아보카도 또한 기특하다. 이미 나는 돌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반려 식물까지 키울 용기는 없지만 말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플러튼 타운홀 \$ 625천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은 집, 5/28 부터 가능
방 두 개 화 2.5 1204 sqft, 밝은 실내, 리모델
아주 잘된 집, 게이트 커뮤니티 최고의 학군
2car garage



플러튼 콘도 \$ 724천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은 2007년 아주 새 콘도 5/28
부터 가능, 방 2 화 2.5 1819 SQFT, 무조건 보셔야
하는 집, 거리지 두개, 플러튼 다운타운 도보거리,
밝은 집, 집 전체 완전 리모델링, 처음 집 구매자 또는
렌트비 절나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플러튼 단독 주택 \$ 79만

방 3 화 2 대지 6700 SQFT
안팎으로 리모델링 다 되어있는 집,
남가주 이웃 도어 라이프 즐기면 딱 좋은 넓은 마당
ADU 지을수 있는 포텐셜 가득한 매물, 놓치지 마세요



플러튼 타운홀 \$ 549천

마켓 가격 보다 싸게 나온 집, TLC 필요한 집
최고의 초중고 도보거리
방 2 화 2 실 평수 보다 훨씬 커보이고 아주
실용적인 집안 구조, 2car garage
아주 넓은 실내 구조, 플러튼 학군, 커뮤니티 수영장



플러튼 하우스 \$ 775천

방 3 화 2 1200 sqft
브레이크 가까이 위치 아주 쾌적한 환경
전체 오픈구조 트레블린바닥
Cul de Sac



플러튼 콘도 \$ 71만

방 4 화 3 1700sqft
키친과 욕탕 업그레이드 많이 된집
마루바닥, 그레이트 카운터 말로설명이 부족한
보셔야 하는 집, CSUF 트로이 고등학교 근처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s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Get it done right with Leah Ivy Chang”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